

# “경제약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든든한 후원자 되겠다”

## 광주일보가 만난 경제사

조종래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

국가가 정책·제도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현대 민주주의 제도가 정착된 이후일 것이다. 특히 경제적 약자는 시장 논리대로라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도태의 대상이 될 뿐이다. 대기업, 글로벌 기업 등이 살벌한 규모의 경쟁을 하는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살아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자체 기술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관련 인재를 수급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해야 하는 등 중소기업은 적은 인원과 작은 자본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약자들이 유지·발전해야 할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 국민의 거의 모두가 여기에서 소득을 올려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사업체수는 613만9899개, 종사자 수는 2521만7123명으로, 사업체의 매출액은 8771조9853억71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종업원이 1~4명인 사업체가 531만4251개(종사자 수 781만9192명), 5~99명의 사업체가 80만5140개(종사자 수 1109만9138명)으로, 사업체 수 전체의 99.6%, 종사자 수 전체의 75.0%를 차지한다. 100~299명의 사업체는 1만6033개(종사자 수 251만6824명), 300명 이상 사업체는 4475개(종사자 수 378만1969명) 등이다.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5000억원 미만의 기업을 모두 포함하는데, 광주에 19만8000개(중



사자 수 46만8000명), 전남에 28만3000개(60만8000명) 등 모두 48만1000개(109만4000명)다. 이는 전국(771만3895개, 1849만2.614명)의 6.2%(종사자 수 5.9%)에 해당한다.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대기업이 극소수인 이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면 이들 중소기업이 존속하면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광주일보는 광주·전남·제주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돕고 든든히 후원하고 있는 조종래(56)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만났다.

## 취임 직후 중기지원기관협의회 구성해 종합지원 체제 구축 광주·전남 기업을 국내시장 안주 말고 해외시장으로 눈 돌려야

1996년 2월 산업자원부의 외청으로 출발한 중소기업청은 지난 2017년 7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면서 위상을 높이며 지원 대상·예산·범위·정책·사업 등이 대폭 늘어났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대표 등과 매달 정기적인 간담회·세미나·현장 방문 등을 갖고, 미흡한 여건 속에서도 이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말 자신이 10여년간 갖고 묶은 서예 실력을 발휘해 직접 신년 연하장을 만들어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 관련 기관·단체에 보낼 정도로 뜨거운 열정을 보였다. 이 연하장에 조 청장은 ‘봉산개도 우수가고(逢山開道 遇水架橋,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으면 된다)’라고 썼다. 삼국지의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패한 뒤 후퇴하면서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 곤경에 처하더라도 방법을 찾으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광주·전남의 중소기업들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려울텐데.

▲사실 광주·전남의 중소기업은 그 수가 적은 편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다. 제조업 비중은 전국 대비 5.0%, 중기업 비중은 전국 대비 4.8%에 불과한데, 소상공인의 비중은 전국 대비 6.3%에 이른다. 대기업도 부족하고,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1차 벤더의 수도 적다. 인구 구성, 경제 규모 등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최근 대기업 협력업체에 방만한 적이 있는데, 대표가 한숨을

쉬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기업 근무일과 맞춰 주4일 근무를 하는데, 일감은 더 줄어 라인 4개 가운데 2개가 쉬고 있었다. 또 상당수 기업들이 비슷한데 수익률이 낮고 주문은 부족해 재고만 쌓이고 있었다. 직원 임금은 꼬박꼬박 줘야 하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희망도 찾기 어려워 난감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럴 때면 정말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고민이 커진다. 밑바닥 경제가 활력 있게 잘 돌아가줘야 하는데 안타깝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지금까지 ‘기술어린 운동장’의 기술기를 개선하는데 집중해왔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불공정·불합리·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겠느냐는 고민이다. 한정된 재원을 갖고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다.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에 대해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딜레마가 존재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해소, 거래 조건 불공정 개선 등에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창업, 성장,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일반 중소기업부터,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3대 고객을 정책 대상으로 하면서 유망기관과 함께 현장 최전점에서 정책 대상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불편한 부분을 살뜰히 챙기는 봉사기관의 역할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불균형의 문제가 큰 것 같다.

▲현재로서는 그렇다. 인구, 자본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아무리 지원을 해도 지방의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제 자리를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관련 정부 예산도 수도권에 더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과거에는 지역별 쿼터를 두고 경쟁을 해서 더 가져가는 방식이었으나 칸막이를 없애면서 오히려 지역 몫이 줄어들었다. 공모를 한다고 해도 정보, 스킵 등에서 수도권 업체들이 앞서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아 걱정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근 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출 만기 연기, 배달-전기요금에 대한 보조 등 대책을 내놨는데, 일단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일시적인 처방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도 이제 지역 시장, 우리나라 시장만 보기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 해외 바이어들도 만나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가진 기술과 상품으로 넓은 시장을 두드려야 한다. 전남도가 최근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다.

—부임하자마자 중소기업 지원기관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인터뷰 전문은 인터넷 광주일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광주·전남 7월 무역수지 5억 7800만 달러 흑자

### 7월말 누계 기준 전년동기대비 수출 2.6%, 수입 3.8% 증가

지난 7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전년 같은 달 대비 7.8% 감소한 47억1000만 달러, 수입은 17.0% 증가한 41억32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5억78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올 7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수출은 2.6%, 수입은 3.8% 각각 늘어나 무역수지는 85억3100만 달러의 흑자였다.

광주본부세관이 18일 발표한 ‘2024년 7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 7월

수출이 전년 같은 달 대비 16.6% 감소한 13억 8500만 달러, 수입은 역시 15.7% 감소한 5억 97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7억8800만 달러 무역 흑자였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가전제품(28.6%)·기계류(40.0%)·타이어(25.4%)가 증가했고, 수출장비(6.4%)·반도체(42.7%)는 감소했다. 수입은 가전제품(24.0%)·기계류(25.4%)·화학품(5.9%)이 늘었고, 반도체(20.3%)·고무

(11.8%)가 줄었다. 전남지역의 지난 7월 수출은 전년 같은 달 대비 3.6% 감소한 33억2500만 달러, 수입은 25.1% 증가한 35억3500만 달러를 보여 무역수지는 2억 1000만 달러 무역적자였다.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수송장비(108.3%)가 증가했고, 석유제품(2.4%)·화학품(8.3%)·철강제품(8.5%)·기계류(2.6%)는 감소했다. 수입은 원유(20.2%)·석유제품(50.4%)·철광(40.0%)·석탄(12.4%)·화학품(38.7%) 등 모두 증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은행 지역 중소기업 현장 방문 협력·지원 방안 논의

### 고병일 은행장 무진기연 찾아

광주은행이 지역 업체를 현장 방문하고, 실질적인 협력 및 지원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광주은행은 18일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최근 전남공단 소재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 ㈜무진기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수주에 성공하면서, 국내 원전 기자재 생산 기업 역시 신규설비 확충 및 인제 채용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면담은 광주지역 원자력 발전 설비 전문회사인 ㈜무진기연 역시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지역 기업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은행은 ㈜무진기연이 지역 원자력 발전 설비 분야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24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 이번 면담을 통해 지역 기업이 체코 원전 수주와 아랍에미리트 원전 추가 수주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향후 광주은행의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을 직접 시찰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지역 기업과의 상생발전



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지역 대표은행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필요한 실

질적인 금융지원을 강화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sang@kwangju.co.kr

## 광주디자인진흥원, 인쇄·출판 자격증 지원

### 다음달 3일까지 43개 업체 모집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지역 인쇄·출판업 관련 업계 소공인들의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다양한 콘텐츠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18일 “진흥원이 운영하는 ‘광주 인쇄소공인 특화지원센터(광주인쇄센터)’가 오는 9월 3일까지 저작권 사용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소재 인쇄 및 관련

업체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쇄, 출판, 광고물 등에 사용되는 유료 이미지, 서체 등의 자격증 사용을 지원하고, 저작권 침해 예방 및 지역 인쇄업계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광주인쇄센터는 저작권 침해로부터 지역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최대 자격증 출판업체 3개사와 협약을 맺고,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업 대상은 광주시 소재 인쇄

(출판 포함) 연관업체 소공인으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이며 매출은 10억원 이하인 업체 43개를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업체는 적격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 이내로, 협약기업들이 제공하는 이미지·서체 등 각종 콘텐츠를 디자인, 인쇄물 등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박영택 광주인쇄소공인 특화지원센터장은 “최근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내 영세한 인쇄소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격증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sang@kwangju.co.kr

## 최저임금 부담 고용 줄인 사업체 10%도 안돼

### 5년 전 34%서 크게 줄어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주는 부담이 매년 감소하면서 고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공개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을 줄였다는 응답은 9.68%로 4년 전(34.19%)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을 줄였다는 응답비율은 지난 2019년 34.19%에서 2020년 27.6%, 2021년 23.58%, 2022년 13.97%로 매년 감소했다. 고용에 변화가 없는 기업도 80%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에 변동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9.93%로 지난 2019년(54.86%)에 견줘 25.07%포인트 늘었다. 최저임금과 관련없이 고용이 증가했다는 응답률은 5.15%였고, 고용이 줄었다는 응답은 5.24%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순이익 감소로 이어졌다는 응답도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익이 감소했다는 응답비는 59.75%였으나 지난해는 38.44%로 줄었고, 이윤에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57.49%였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제품(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기업은 28.40%였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신규채용 영향과 관련해서 ‘영향이 없다’는 기업은 82.38%, ‘감소했다’는 기업은

13.26%였다.

올해 적용됐던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사업주는 ‘보통이다’ 응답이 50.68%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약간 높은 수준’(30.03%), ‘매우 높은 수준’(8.60%)의 순이었다. 반면 근로자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52.87%로 가장 높았고 ‘약간 낮은 수준’(33.67%), ‘매우 낮은 수준’(6.68%)의 순이었다.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에 대해서는 사업주(49.71%)와 근로자(62.30%) 모두 물가상승률이라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에 영향을 미쳤는 지를 살펴본 결과 근로자와 사업주의 응답도 상이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임금이 어떻게 변했는 지를 살펴본 결과 사업주 81.13%는 최저임금 만큼 인상했다고 응답한 반면, 근로자 응답자는 46.78%만이 인상분 만큼 올랐다고 답했고,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4.23%나 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노동경제학회가 지난해 11~12월 사업체 3070곳과 근로자 55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지난 6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했다.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는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임금실태 분석과 더불어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로,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게 제공되지만, 일반 공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된 이후인 8월에야 이뤄진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국제유가 불확실성에 유류세 인하 연장되나

### 정부 내주 연장여부 결정

정부가 이달로 끝나는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조만간 발표한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에도 물가 안정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우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된 뒤 일몰기한을 연장했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향후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큰 점은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힘을 실고 있다.

향후에도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가능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지정학적 위험이 남

아 있어 국제 유가는 언제든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유가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현행 유류세 인하 폭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면서 시간을 두고 환율 여부 등을 저울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유류세 인하가 계속돼 세수가 감소하는 점은 부담이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 1133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3	14	20	28	29	34	23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105,079,491	13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2,479,529	73
3	5개 숫자일치					1,666,426	2,737
4	4개 숫자일치					50,000	143,047
5	3개 숫자일치					5,000	2,393,005